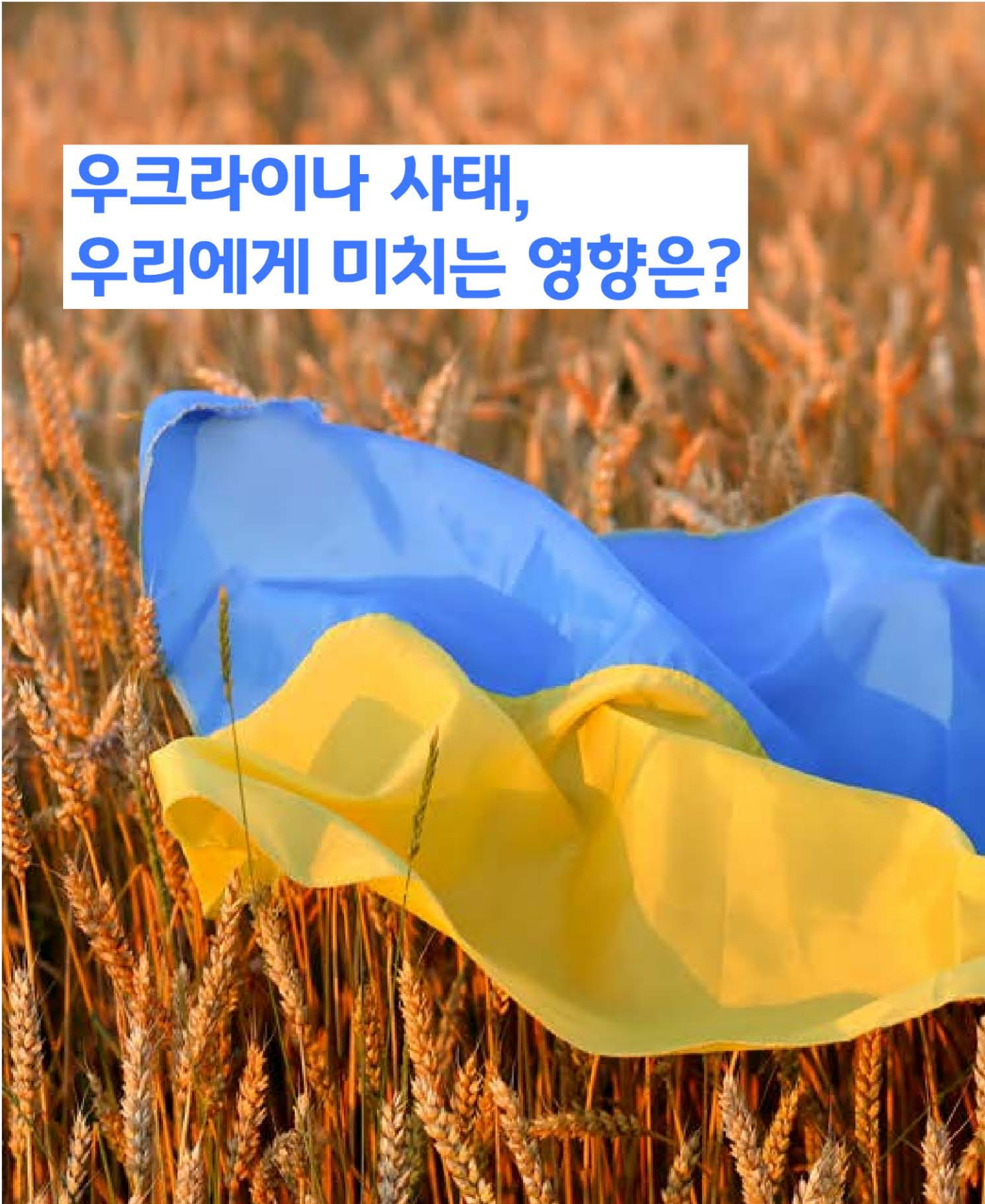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 대체 조달 가능하나 곡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에 따라 흑해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밀, 옥수수, 보리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후 전쟁의 장기화 우려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 EU, 일본 등의 금융제재가 시작되면서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몰아치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및 식품제조업에 사용되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이 국내 배합사료, 가공식품, 축산물, 외식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 변동성으로 전이된다. 오리도 마찬가지다. 오리의 사료는 옥수수, 수수, 보리 같은 곡물들이 주요 원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만두고만 보고 있다가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가 올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축우, 양돈 등 다른 축종에서의 사료비 고공행진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 후 1개월만인 지난 3월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레포트가 발행됐다.

오리 농가의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정리해 소개한다.

국제곡물 시장 동향

국제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과 함께 급등하였으며 이후 전쟁의 장기화 우려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 EU, 일본 등의 금융제재가 시작되면서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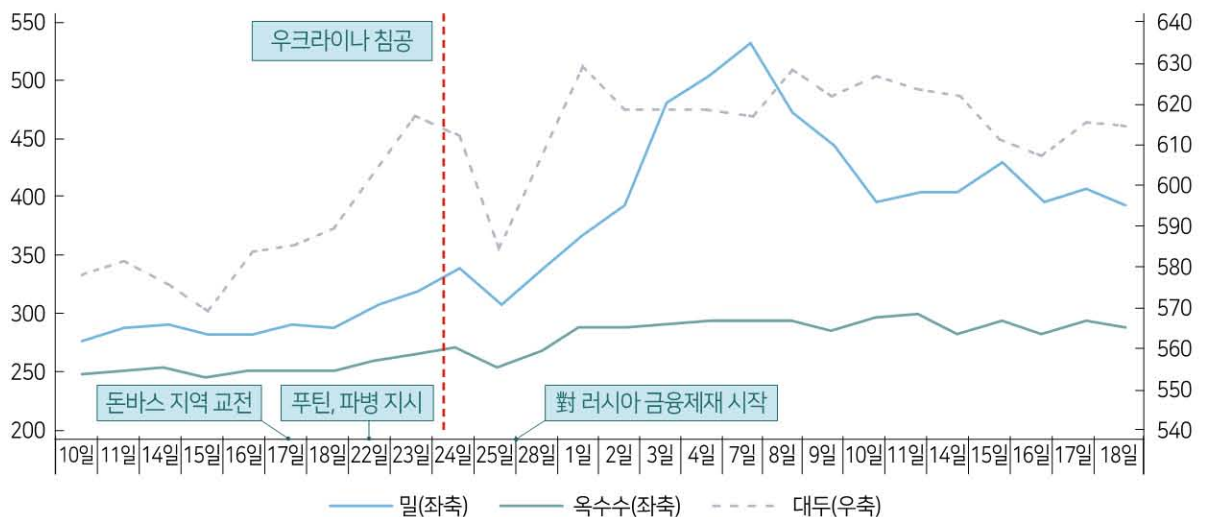
밀, 옥수수, 콩의 금년 3월 선물가격은 평년 3월 대비 각각 137.7%, 102.1%, 72.0% 상승하였으며, 상승세가 본격화된 2021년 3월 대비 각각 82.0%, 36.7%, 18.9%, 전월 대비로는 밀 43.9%, 옥수수 14.9%, 대두 5.8% 상승했다. 특히 밀은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연구원들은 이를 전쟁으로 인한 흑해 지역 곡물 수출량 감소 우려에 더하여 주요 곡물 수출입국의 수출제한 조치도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곡물 CBOT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선물가격" (http://www.krei.re.kr:18181/new_sub01, 검색일: 2022. 3. 21.)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곡물 수출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의 1위 수출 농산물로 연간 약 24.9백만 톤을 수출하는데 이는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밀(16.1백만 톤, 9%), 해바라기유(6.0백만 톤, 43%) 순이다.

우크라이나는 밀의 경우 세계 5위 수출국인데, 지난 20여 년간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수출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세계 수출량의 43%를 차지한다.

밀은 러시아의 1위 수출 농산물로 매년 약 37.7

백만 톤을 수출하는데, 이는 세계 밀 수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리(4.8백만 톤, 14%), 옥수수(3.4백만 톤, 2%), 해바라기유(2.8백만 톤, 20%) 순이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밀 수출량이 거의 없었으나, 이후 20년간 생산량이 2배 증가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세계 1위 밀 수출국인 미국 수출량을 추월하게 됐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 1위 밀 수출국으로 최근 3년(2018~20년, FAO 자료 기준) 연평균 37.7백만 톤(세계 시장 점유율 20%)을 수출했다.

러시아 곡물 및 유지류 수출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최근 3개월 평균		
								세계		한국
								수출량	점유율	
밀	42	1,032	1,185	2,123	4,397	3,187	3,727	3,770	19.9%	11
보리	54	177	154	529	544	394	496	478	13.6%	0
옥수수	0	7	23	370	478	312	229	340	1.9%	34
해바라기유	19	31	40	144	210	310	321	280	20.0%	0
대두	5	1	0	38	96	89	120	102	0.6%	1
유채	6	6	6	5	49	44	65	53	2.3%	-

우크라이나 곡물 및 유지류 수출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최근 3개월 평균		
								세계		한국
								수출량	점유율	
옥수수	16	280	289	1,905	2,144	2,536	2,795	2,492	13.6%	59
밀	20	601	430	1,345	1,637	1,390	1,806	1,611	8.5%	62
해바라기유	58	85	213	394	559	548	686	597	42.6%	1
보리	86	350	459	463	360	239	505	368	10.4%	0
유채	7	18	118	143	244	304	238	262	11.4%	0
대두	1	17	20	220	224	296	179	233	1.5%	0

주: 점유율은 세계 수출량 대비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량 비중이며 최근 3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을 의미함.
 자료: FAO STAT (<http://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2. 3. 16)



국제곡물 수급 영향 및 가격전망

우크라이나 사태로 흑해 지역의 2021/22년 밀, 옥수수 수출량은 각각 7백만 톤, 6백만 톤 감소했다. 2021/22년도 3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치 역시 전월 전망치 대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량과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수정됐다.

곡물 수출량 감소는 군사행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저장 곡물 일부가 손상되었고, 수출을 위한 물적 인프라(철도, 도로, 엘리베이터 등) 피해에 따라 수출향으로의 곡물 수송이 어려우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국제 거래에 필요한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가 전쟁으로 폐쇄된 것이 곡물 수출량 감소의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FAO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량이 감소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여 2022/23년 밀

가격은 8.7~21.5%, 옥수수 가격은 8.2~19.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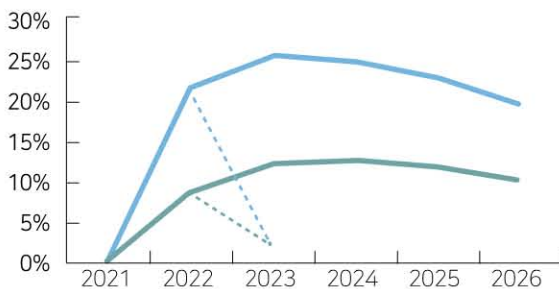
고유가와 고곡가에 따른 농자재 수요 증가로 2022/23년 비료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베이스라인)에 비해 13%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는 2022/23년 곡물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약한 충격과 강한 충격 시나리오의 밀 가격은 각각 8.7%, 21.5%, 옥수수 가격은 각각 8.2%, 19.5%, 보리, 수수 등의 여타 곡물류는 각각 7.0%, 19.9%, 유지류는 각각 10.5%, 17.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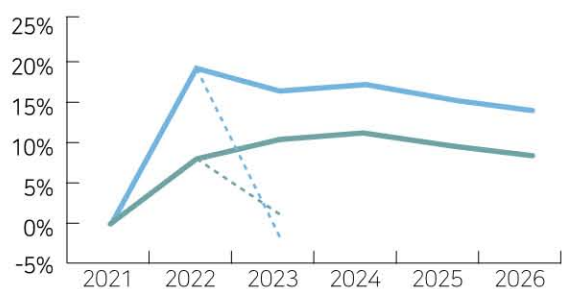
국제유가 상승 및 흑해 지역 곡물 수출량 감소가 유지된다면 국제곡물 가격은 여타 지역 생산 및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FAO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가격 영향 분석 결과

밀가격



옥수수 가격



— 강한 충격, 장기 - - - 강한 충격, 단기
— 약한 충격, 장기 - - - 약한 충격, 단기



우리나라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대두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간 곡물 수입량은 1천 8백만 톤에 달하며, 국제곡물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입액은 약 4조~7조 원으로 연간 변동 폭이 큰편이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 증가로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량은 증가 추이를 보이며 최근 3년(2019년~2021년) 연평균 수입량은 1,849만 톤(식용 599만 톤, 사료용 1,250만 톤)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료용 밀과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우크라이나 산과 러시아산의 의존도가 높다.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을 기준으로 사료용 밀 총수입량은 125만 톤이며 이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수입량은 각각 61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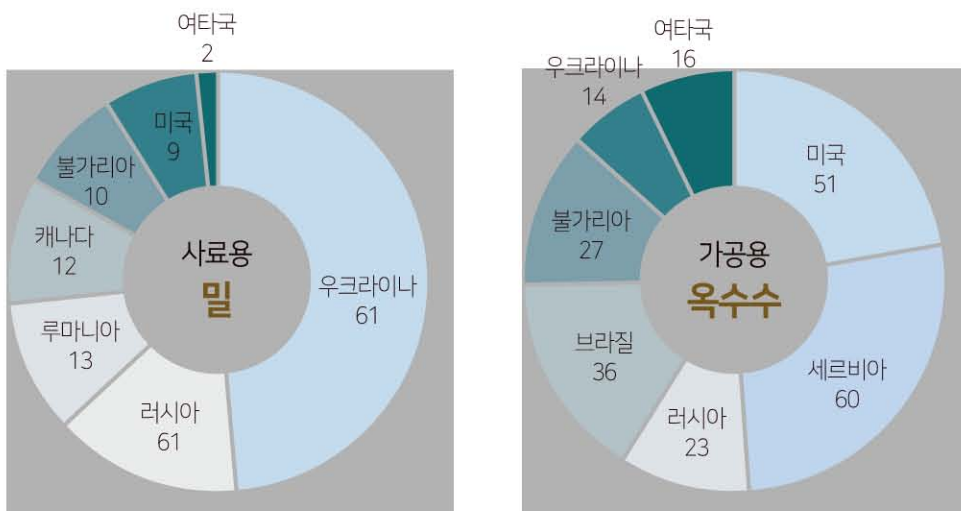
(48.9%), 18만 톤(14.3%)으로 집계된다.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는 각각 6.1%, 10.1%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초 기준으로 국내 업체들은 금년 상반기까지의 곡물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산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체 원산지를 통한 반입을 모색 중이다.

사료용 밀은 3월 초 기준으로 7월 초순(계약물량 포함 시 10월),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초순(계약물량 포함 시 7월 중순)까지의 업계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곡물 계약물량(26만 톤)에 대해서는 추가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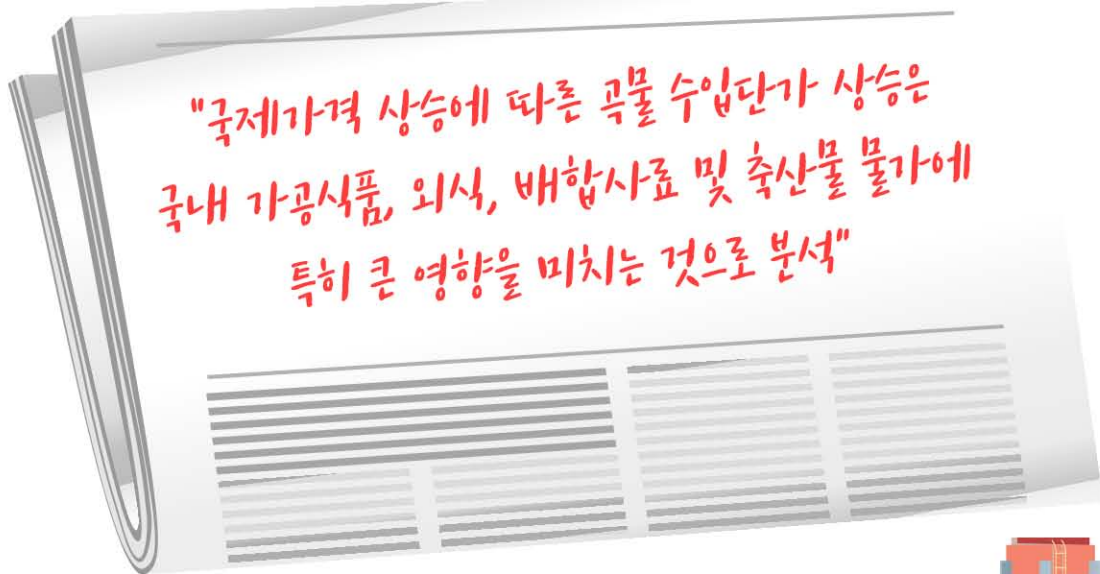
원산지별 사료용 밀과 가공용 옥수수 수입량

(단위: 만톤)



주: 최근 3개년(2019~2021년) 평균 수입량을 나타냄.

자료: FAO STAT (<http://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2. 3. 16.)



국내 영향 분석 및 대응



국제곡물 시장에 위기 발생으로 인한 주요 국내 영향은 곡물 미반입에 따른 국내 식량안보 위협과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 축소, 곡물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등으로 볼 수 있다.

업체가 확보한 재고와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필요한 물량을 반입할 수 없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고곡가로 인한 곡물 수입단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곡물 시장에서 밀, 옥수수의 공급이 감소한다면 이들뿐만 아니라 여타 곡물의 가격도 동반하여 상승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 영향은 곡물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이 당연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가격전이(price transmission) 시계열 모델을 이용한 김종진 외(202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입 단가 10% 상승은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물가를 각각 3.40%, 0.58%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자물가는 5.3%,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72~2.94% 상승시키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박성진 외(2019)의 연구에서는 수입곡물 가격 10% 상승은 제분 5.7%, 사료 3.9%, 전분 및 당류 3.7%, 유지 3.6%, 가공 2.4%, 면류 1.9%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응하여 정부, 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원료 대체 원료(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물량 증량, 대체 원산지 확보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밝혔다.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 및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원료구매자금(사료647억 원, 식품 1,280억 원)의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인하하고 사료원료 대체 곡물의 할당물량을 증량(겉보리 4만 톤→10만 톤, 소맥피 3만 톤→6만 톤)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계약물량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2월 28일부터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업계 재고(특히, 가공용 옥수수 및 사료용 밀) 등의 수급 상황 점검 및 수입선 변경, 대체 입찰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다.

국제곡물 시장의 수급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발

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곡물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고곡가는 흑해 지역 곡물 생산 및 수출 능력 저하, 비료 등의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레포트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곡가는 가공식품, 배합사료, 축산물, 외식 등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관리를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곡물 자급률을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 선도구매·장기계약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해외농업개발 지원 강화, 민간업체 지원을 통한 국제곡물 유통시장 진입 등을 통해 위기 시 해외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